

총선 전주 선거구 3곳 '진담' 승부

갑·을·병 각각 795표·111표·989표 차로 승패 갈려...무효표 천여표 달해 패배자 아쉬움

20년만에 최대 투표율을 자랑한 전북지역 제20대 총선은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였다. 특히 전주시 을 선거구는 개표결과, 1~2위의 득표차이가 100여표에 불과해 치열했던 그 날의 '개표 레이스'를 연상케 한다. 여당의원 불모지인 전북에서 20년만에 여당의원을 배출한 전주시을은 1~2위의 표차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이 4만382표, 더민주당 최형재 후보는 4만187표를 획득해 111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이 됐다. 이 지역 무효표는 1~2위 득표차의 9배에 가까운 952표인 것으로 기록됐다. 초반의 열세를 뒤집고 중반 대역전을 펼친 전주시갑은 김광수 당선인(국민의당)이 3만9,060표를 획득해 2

위를 한 더민주주의 김윤덕 후보(3만 8,265표)를 795표 차로 따돌렸다. 이 지역 무효표는 1,124표로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차보다 많아 보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한 개표일의 레이스를 연상케 한다. '전주대첩'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전주시병 선거구도 1~2위 득표차에 비해 무효표가 더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이 6만1,662표를 획득해 6만673표를 획득한 더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989표 차이(무효표 1,034표)로 따돌리고 금배지를 획득했다. 개표 당일 결과를 끝까지 지켜봤다는 한 유권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를 찍는 칸의 크기가 조금만 더 크게 나왔더라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듯"이라는 말과 함께 "단 몇표 차이로도 승부는 승부,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는 자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성...다짐

14일 전북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이춘석(익산갑)·안호영(원주무주진안장수) 당선인이 전북도민에게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날,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당선인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사진 오른쪽).



/정영수기자

국민의당, 공약점검단 설치

국민의당은 14일 당내 특별기구로 총선 정책공약점검단을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당부터 총선 정책공약점검단을 설치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4·13 총선 공약평가 이행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과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정책공약점검단은 경제·금융, 노동·복지·여성, 외교·통일·안보, 정치·사법·인권, 청년·교육, 농업·어업 등 분야별로 정책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성주기자

군소정당 '초라한 성적표'...정의당은 선전

기독교자유당 2.64%...나머지 정당 1%도 얻지 못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번 20대 총선에는 정의당 외에 ▲기독교자유당 ▲민주당 ▲코리아당 ▲일제위안부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신진화연대 ▲공화당 ▲불교당 ▲기독교당 ▲노동당 ▲복색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친반통일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등의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나섰지만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을 넘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10.3%, 219만3405표)에 이어 자유선진당이 지역구 당선자는 내지 못했으나 정당득표율 3.23%(69만754표)를 얻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은 바 있다. 그 뒤를 기독교당(1.20%), 진보신당(1.13%), 한나라당(0.85%) 등 여러 군소정당들이 있었으나 원내 진입에는 실패했다.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서는 여당의 공천 파동과 야권 분열로 인해 무당파층이 늘면서 군소정당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류가 흘렀었다. 정의당도 당초 이 같은 기대를 품고 이번에는 두자리 수의 의석 수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역구 2

석, 비례대표 4석을 합한 6석만을 획득했다. 19대 때의 5석에 비하면 한 석이 늘었지만 목표치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다. 다만 심상정(경기 고양갑) 대표와 노회찬(경남 창원원성산) 전 대표 등 두 명의 '3선' 의원이 탄생한 것은 의미가 크다. 3선 이상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들 중 한 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3%의 벽에 막혀 좌절했다. 기독교자유당만이 2.64%(62만8853표)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정당은 1%도 얻지 못해 원내진입에 무산됐다. /이성주기자

송하진 지사 총선 당선자 만나 화합·협력 요청

송하진 전북지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에게 '화합과 협력을 통해 전북발전을 이끌어내자'고 요청했다.

14일 송하진 지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10명의 당선인(국민의당 7명·더불어민주당 2명·새누리당 1명)을 차례로 만났다. 송 지사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 이번 총선에서의 도민 선택은 따듯한 질책, 날카로운 견제와 균형의 선택으로 화합과 협력이 우리가 나아가길 길을 보여줬다"면서 "전북 3당 국회의원 시대의 의미가 매우 크고 앞으로 긍정적 효과를 내어준다"고 밝혔다. 이어 "화합과 협력, 전북발전을 열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각종 전북 현안에 초당적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전북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일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송 지사는 3당의 당선자들에게

국가예산 확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기금운용본부 전북 정착 등 주요 현안사업을 강조했다. 이같은 송 지사의 요청에 10명의 당선인 모두 전북발전을 위해 적극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7명의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전북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북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도 "3당이 화합하고 도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하겠다"라며 "(내) 머리 속에는 당을 떠나 도민들의 선택에 부응하는 전북발전 해결사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다"고 말했다. 2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도 "지금까지와 같이 전북발전 선봉대 역할을 맡겠다"라며 "우선 긴급현안문제로 있는 탄소법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도, 민간소형 영세 공동주택 256개소 안전점검 실시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간 소유 소형 영세 공동주택 25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안전점검은 국가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그동안 안전사각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관련법상 의무관리대상인 아닌 관리인이 없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검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위험요인이 있는 C, D등급의 소규모 공동주택(소형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각종 시설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도는 소유자의 안전성 확보와 재정부담을 덜고 또한 현재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진단과 관련해 부족한 전문가 인력 지원을 도에서 지원함에 있어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도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 결과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곳은 소유주로부터 안전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토록 조치하고 안전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예산지원 등을 검토하도록 시군에 전파할 예정이다. 도민안전실 관계자는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남은 기간 동안 도내 구석구석 안전사각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안전주택(소형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각종 시설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도는 소유자의 안전성 확보와 재정부담을 덜고 또한 현재 시

정부, 총선 후 공직기강 잡기 나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참패로 정책 재조정 불가 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오후 홍윤식 장관 주재로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가졌다. 후 처음 열리는 중앙과 지방간 회의다. 홍 장관은 이 회의에서 "지자체는 다시 한번 공직 기강을 행해 주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예산 밖 총선 결과에 어수선해진 분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염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논의된 안건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지자체 차원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대책이었다. 행정부는 또 8곳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등 51곳의 재·보궐선거에 따른 인수인계 조치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주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